

靈樞·五癆津液別에 대한 研究

鄭鐘國·申榮日

I. 緒 論	157
II. 研究方法 및 資料	157
1. 研究方法	157
2. 研究 資 料	158
III. 本 論	158
第一章. 五液의 生成機轉	158
第二章. 津液의 逆順과 病證	166
IV. 意 譯	169
V. 結 論	170
參考文獻	171
參考辭典	171

靈樞·五癘津液別에 대한 研究

鄭鐘國·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Research on the *ORyungJinAekByeol*(五癘津液別) of the *Young Chu*(靈樞)

Body fluid(津液) is a general term for normal mucus in human body, including saliva, gastric juice, intestinal juice and articular fluid in joints as well as tear, running nose, sweat, etc.. The formation of Body fluid goes through two phases. First phase is digestion of food at stomach, and then evaporation and classification of energy at Triple warmer(三焦). More technically speaking, Body fluid is divided into the Jin(津) & the Aek(液).

Aek is a very mild and water-like fluid, runs deep into the internal organs. Jin is a thick and sticky liquid, running shallow under the skin or in the joints of limbs. Major roles of body fluid over the body are to moisturize the internal organs, flesh, skin, etc., to soften the joints, to fill the bone marrow, and to balance Yin and Ya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ole of body fluid and how to differentiate them, the liquid metabolism in the human body, an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weat, urine, tear, spit, bone marrow, etc.. The imbalance of Yin and Yang and disturbance of Triple warmer's evaporation lead into lumbago, leg weakness and edema is also explained here.

Key Words : *ORyungJinAekByeol*(五癘津液別), Triple warmer(三焦), Jin(津) & the Aek(液), sweat, urine, tear, spit, bone marrow

접 수 : 2000년 10월 30일

체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정종국·신영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63-330-3511, maggi@chonlian.net)

I. 緒 論

津液은 인체내의 정상수액에 대한 總稱으로서 唾液·胃液·腸液과 關節腔內의 액체뿐만 아니라 눈물·코물·땀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津液의 生成은 水穀이 脾胃의 運化 吸收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三焦의 氣化作用에 힘입어 分別轉化하는데 기인한다. 津과 液의 차이에 대해서 『靈樞·決氣』에 “腠理가 열리면 많은 땀이 흐르게 되는데 이를 일러 津이라 하고, 水穀을 먹어 氣가 충만해지면 骨 부위로 스며들어가 적서 骨關節을 屈伸할 수 있게 하고, 腦髓를 補益하고 皮膚를 潤澤하게 하는 것을 일러 液이라고 합니다.¹⁾”라고 하여 分布와 性狀의 차이에 따라 津과 液의 陰陽으로 구분하였는데, 液은 성질이 柔하여 五臟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므로 水에 가까운 流動하는 물질이고, 津은 성질이 強하여 空竅 皮膚 등의 얇은 곳에 흐르므로 粘液性이 강하여 流動하지 못하는 물질이다. 이의 주된 作用은 筋에 分布하여 臟腑·肌肉·經脈·皮膚를 적시면서 기르고, 關節을 潤澤하게 하며, 腦髓와 骨髓를 滋潤하여 채우고, 人體陰陽의 平衡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作用을 하는 津液이 부족하였을 때 나타나는 病證에 대하여 『靈樞·決氣』에 “精이 고갈되면 귀가 멀고, 氣가 고갈되면 눈이 멀고, 津이 고갈되면 腠理가 열려서 땀이 많이 흐른다. 液이 고갈되면 骨關節을 潤澤하게 屈伸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초췌하며 腦髓가 줄어들고 다리가 시큰거리며 귀가 자주 운다. 血이 고갈되면 피부색이 창백하고 초췌하여 운기가 없고 經脈이 空虛해진다.”²⁾라고 하여 각각의 病證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本篇은 津과 液의 機能과 區別點을 제시하였고, 인체의 여러 가지 水液代謝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津液의 變化 즉 땀, 오줌, 눈물, 침, 髓液의 생성원리와 이의 흐름에 대해 해설하고, 陰陽의 不和와 三焦의 氣化

失常이 腰痛 脛痠 水脹病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篇名을 五癰津液別이라고 하였다.

本篇의 내용은 『黃帝內經太素』卷二十九 「津液」, 『黃帝針灸甲乙經』卷一 第十三 「津液五別」, 『類經』卷十六 疾病類 第五十八 「五癰津液別」에 全篇이 실려있고, 『醫學綱目』卷十三 「目淚不止」, 『脾胃論』卷上 「脾胃虛實傳變論」에는 本篇 내용 일부가 실려있다.

本篇의 내용은 2장으로 나누어지는데, 第一章은 津液이 五臟의 作用에 따라 변화하여 溺與氣·汗·泣·唾·水脹이 생성되는 기전에 대해 논술하였고, 第二章은 津液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腰痛 脛痠 水脹의 병리기전에 대해 논술하고 있으므로 醫學의 水液代謝 面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版本의 誤謬를 바로잡고 正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을 보다 정확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二章으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 나. 『類經』, 『靈樞經校釋』 및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限 대화하였다.
-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하여 比較調査하였다.
-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풀과 訓을 選擇하였다.
-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三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로 구분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의

1) 腠理發泄하여 汗出溱溱을 是謂津이요 穀入氣滿하여 淖澤注於骨하니 骨屬屈伸하고 洩澤補益腦髓하고 皮膚潤澤을 是謂液이라
2) 精脫者는 耳聾하고 氣脫者는 目不明하고 津脫者는 腠理開하여 汗大泄이라 液脫者는 骨屬屈伸不利하고 色夭하며 腦髓消하고 脛痠하며 耳數鳴이라 血脫者는 色白天然不澤하고 其脈空虛하니 此其候也라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r00', 引用文獻에 'r00', 文獻의 章節에 'r00'等이며,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2. 研究 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書 名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5 明金陵尚義齋刊本	金陵本
6 明刻本	明本
7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守山閣刊本	守本
9 日本舊抄本	日抄本
10 日本田中清左衛門本	日刻本
11 黃帝內經太素	太素
12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3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合本
14 仲景全書 傷寒論	傷寒
15 脾胃論	脾胃論
16 醫學綱目	綱目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汪詒庵	清	素問靈樞類纂約註	汪
6	黃元御	1756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8	靈樞識	丹波
8	章楠	1825	靈素節注類編	章
9	楊維傑	1976	黃帝內經靈樞譯解	傑
10	郭靄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郭
11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12	程士德	1985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內經	程
13	李今庸	1988	新編黃帝內經綱目	庸

III. 本 論

第一章. 五液의 生成機轉

【原文】

黃帝問于岐伯曰 水穀入于口^하야 輸⁽¹⁾于腸胃 其液別爲五^{하나니} 天寒衣薄^이면 則爲溺⁽²⁾與氣¹⁾ 天熱衣厚²⁾면 則爲汗^이요 悲哀氣并⁽³⁾이면 則爲泣^이요 中熱胃緩^이면 則爲唾^요 邪氣內逆^이면 則氣爲之閉塞而不行^{하고} 不行則爲水脹⁽⁴⁾이니 余知其然也나 不知其何由生⁵⁾이니 願聞其道⁽⁴⁾하노이다

岐伯曰 水穀皆入于口⁵⁾에 其味有五^하야 各注其海⁶⁾⁽⁵⁾ 하니 津液이 各走其道^라 故로 三焦出氣⁷⁾ 하야 以溫肌肉^{하고} 充皮膚^는 爲其津^이요 其流而不行⁸⁾者^는 爲液^{이라} 天暑衣厚 則腠理開 故로 汗出^{이나} 寒留于分肉⁹⁾之間^하야 聚沫 則爲痛^이요 天寒 則腠理閉^하야 氣濕不行¹⁰⁾ 하야 水下留于膀胱¹¹⁾ 하니 則爲溺與氣^라 五藏六府에 心爲之主^요 耳爲之聽^이요 目爲之候¹²⁾⁽⁶⁾요 肺爲之相⁽⁷⁾ 이요 肝爲之將¹³⁾ 이요 脾爲之衛⁽⁸⁾ 요 腎爲之主外¹⁴⁾ 라

故로 五藏六府之津液은 盡上滲于目이로래 心悲氣并 則心系急하고 心系急 則肺舉하고 肺舉 則液上溢¹⁵⁾이라 夫心系與肺는 不能常舉¹⁶⁾나 乍上乍下 故로 欬而泣出¹⁷⁾矣라 中熱 則胃中消穀하고 消穀 則蟲上下作¹⁸⁾하야 腸胃充郭 故로 胃緩하고 胃緩 則¹⁹⁾氣逆 故로 唾出이니이다

【校勘】

- 1) 爲溺與氣: 『傷寒』成注 卷五에는 '爲溺'로 되어 있다.
- 2) 天熱衣厚: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天暑衣厚'로 되어 있다. 『校釋』에 "아래 문장 '天暑衣厚 則腠理開'를 보더라도 '天暑衣厚'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3) 其何由生: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張注本』에는 모두 '其所由生'으로 되어 있다.
- 4) 願聞其道: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願聞其說'로 되어 있다.
- 5) 水穀皆入于口: 『脾胃論』卷上 脾胃虛實傳變論에는 '水穀入口'로 되어 있다.
- 6) 各注其海: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分注其海'로 되어 있다.
- 7) 三焦出氣: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모두 '上焦出氣'로 되어 있다.
- 8) 其流而不行: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모두 '其留而不行'으로 되어 있다.
- 9) 寒溜于分肉: 『張注本』에는 '寒溜于分肉'으로 되어 있다.
- 10) 氣濕不行: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모두 '氣滯不行'으로 되어 있다.
- 11) 水下留于膀胱: 『甲乙』卷一 第十三과 『馬注本』 『張注本』에는 모두 '水下流于膀胱'으로 되어 있고,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藏本』에는 모두 '水下溜于膀胱'으로 되어 있다.
- 12) 目爲之候: 『藏本』에는 '目爲之候'로 되어 있고, 『綱目』卷十三 目淚不止에는 '目爲之視'로 되어 있다.
- 13) 肝爲之將: 『綱目』卷十三 目淚不止에는 '肝爲之榮'으로 되어 있다.

- 14) 腎爲之主外: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腎爲之主水'로 되어 있다.
- 15) 心系急則肺舉 肺舉則液上溢: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모두 '急則肺葉舉 舉則液上溢'로 되어 있다.
- 16) 夫心系與肺 不能常舉: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夫心系舉肺 不能常舉'로 되어 있고,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夫心系急 肺不能常舉'로 되어 있으며, 『張注本』에는 '夫心系與肺 不能盡舉'로 되어 있고, 『統本』 『金陵本』 『日抄本』에는 모두 '夫心系與肺 不能常與'로 되어 있다.
- 17) 欬而泣出: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喏而泣出'로 되어 있고, 『甲乙』卷一 第十三에는 '喏而涎出'로 되어 있다.
- 18) 蟲上下作: 『日抄本』에는 '蟲上下作'으로 되어 있다.
- 19) 故胃緩 胃緩則: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故緩 緩則'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輸: 送也, 보낼 수.
- (2) 溺: 尿同, 오줌 노.
- (3) 并: 竝也, 아우를 병.
- (4) 水脹: 濕邪의 침범으로 脾胃의 運化機能이 장애를 받아 腸胃에 水氣가 모여 생기는 浮腫證.
- (5) 海: 四海, 즉 髓海(腦), 氣海(膻中), 血海(衝脈), 水穀之海(胃)를 말한다.
- (6) 候: 伺望, 망보는사람 후.
- (7) 相: 百官之長, 정승 상, 재상 상.
- (8) 衛: 護也, 지킬 위.

【較註】

【1】水穀入于口 輸于腸胃 其液別爲五 天寒衣薄 則爲溺與氣 天熱衣厚則爲汗 悲哀氣并則爲泣 中熱胃緩則爲唾 邪氣內逆 則氣爲之閉塞而不行 不行則爲水脹 余知其然也 不知其何由生 願聞其道

楊張·景岳·黃程·『校釋』郭은 "五液이라는 것은 陰精의 총칭이다. 이 편에서는 溺(오줌) 汗(땀) 泣(눈물) 唾(침) 水(부종)로 보았으니 그 이름이 다섯가지며, 『宣明五氣篇』에서는 五臟은 津液을 化生하니 心の 津液은

汗이요, 肺는 涕요, 肝은 淚요, 脾는 涎(끈적한 침)이요, 腎은 唾(맑은 침)이라하니 이것이 五液이며, 『決氣篇』에서는 精氣津液血脈이라고 하였으니 그 변화된 것이 여섯이라는 것이며, 또한 道家에서는 涕唾精津汗血液이라하여 일곱이라 하였지만 五液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다.3)』라고 하였다.

[2] 水穀皆入于口 其味有五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楊庸은 “五味는 五臟 四海로 흘러 들어가니 肝臟 心臟은 血을 主宰하는 까닭에 신맛 쓴맛은 血海로 들어가고, 脾臟은 水穀之氣를 主宰하므로 단맛은 水穀之海로 들어가며, 肺臟은 氣를 主宰하므로 매운맛은 髓中氣海로 들어가고, 腎臟은 腦髓를 主宰하므로 짠맛은 髓海로 들어간다. 눈은 눈물, 腠理는 땀, 廉泉은 침, 코는 콧물, 입은 침의 통로이다. 上焦에서 氣가 나와 胃의 上口로 나오는 것을 衛氣라고 하니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와 腠理를 윤택하게 하므로 津이라고 칭하고, 水穀의 精微로운 液이 骨과 骨節로 스며들어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液이라고 칭한다.4)』라고 하였고,

馬는 “사람에게 津과 液이 있는 것은 바로 水穀을 먹으면 氣味가 다섯가지가 되니 각각 氣海之中으로 올라가 쌓여 宗氣가 되고 津液이 각각 그 길을 따라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三焦에서 上焦는 宗氣가, 中焦는 營氣가, 下焦는 衛氣가 나오는 곳이니 三焦에서 모두 氣가 나와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津이 되고, 그 안에 머물러 運行하지 않는 것은 液이 된다.5)』라고 하였고,

張章黃傑『校釋』에서는 “水穀에는 모두 서로 다른五味가 있으니五味를 섭취함에 각각 그 海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맛은 肝으로 매운맛은 肺로 들어간다는 등이니五味에서 化生된 津液은 氣의 흐름을 따라 그 통로로 들어간다. 三焦는 相火가 游行하는 곳이니 陽氣는 이를 말미암아 밖으로 나와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윤택하게 하는 水氣를 津이라 하니 陽化에 의해 생성된 것이요,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陽氣를 따라 흐르지 않으며 津보다 濃厚한 것을 液이라 하니 陰化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6)』라고 하였고,

3) 楊: 輸는 送致也니 水穀入於口하야 逆於腸胃之中하야 化爲津液에 凡有五別하니 則五藏津液이라 凡所言液者는 通名爲津이니 經稱津者를 不名爲液 故로 液有五也라하니 此는 略舉五液하야 請解其義也라 ○張: 此는 論精別而爲津爲液 爲汗爲溺 爲泣爲唾也라 ●景岳: 五液者는 陰精之總稱也라 本篇엔 以溺汗泣唾水하니 故로 名爲五며 宣明五氣篇엔 曰五藏化液하니니 心爲汗이요 肺爲涕요 肝爲淚요 脾爲涎이요 腎爲唾라하니 是爲五液이며 決氣篇엔 曰精氣津液血脈이라하니 其辨有六이며 又道家 曰涕唾精津汗血液이라하니 其名則七이나 皆無非五液之屬耳라 ○黃: 溺汗泣唾水가 是五液이라 ○程: 溺는 尿同이라 緩은 卽鬆弛니 爲功能障之一이라 唾는 指唾液이니 脾胃有熱하야 功能障면 唾液分泌過多라 素問宣明五氣篇에 謂脾爲涎 腎爲唾라하니 卽此處唾는 當包括涎在內라 ○校釋: 水穀入于口而轉輸到胃腸하야 所化生의 津液이 分爲五種하니 如天氣寒冷하고 衣服單薄時엔 多化尿與氣요 天熱하고 衣服厚時엔 多化汗이요 情緒悲哀하야 氣并于上이면 就化爲泪요 因中焦有熱而胃弛緩이면 則化爲唾液이요 邪氣內阻하야 陽氣閉塞하야 不能宣散水氣면 就成爲水脹이니 我知道這些情況이나 但不知其化生의 道理하니 請你講一下이라 ○郭: 水穀進入胃裏하야 輸送到腸胃면 其中의 液體分爲五種하니 如天寒衣薄엔 就多化爲尿與氣요 天暑衣厚엔 就多出汗이요 情緒悲痛하야 氣合于心엔 就化爲泪요 中焦有熱하야 胃氣弛緩엔 就多化爲唾요 邪氣內阻하야 因而陽氣閉塞하야 不能運行엔 就成爲水脹之病하니 我知道他的這些情況이나 但不知道爲什麼會發生的이니 希望聽到它的理라

4) 楊: 五味走於五臟四海하니 肝心二臟主血 故로 酸苦二味는 走於血海요 脾主水穀之氣 故로 甘味는 走於水穀海요 肺主於氣 故로 辛走於髓中氣海요 腎主腦髓 故로 鹹走髓海也라 目爲泣道요 腠理爲汗道요 廉泉爲涎道요 鼻爲涕道요 口爲唾道也라 上焦出氣하야 出胃上口를 名曰衛氣니 溫暖肌肉하고 潤澤皮膚於腠理 故로 稱爲津也요 水穀精汁이 注骨屬節中하야 留而不居를 謂之爲液이라 ○庸: 上焦出氣는 指水穀津液이 由上焦肺而敷布全身이라

5) 馬: 人之所以有津與液者는 正以水穀皆入於口에 氣味有五하니 各上走其氣於氣海之中하야 積爲宗氣하고 津液이 各走其道라 三焦者에 上焦는 爲宗氣之所出이요 中焦는 爲營氣之所出이요 下焦는 爲衛氣之所出이니 共出其氣하야 以溫外之肌肉하고 充外之皮膚者가 爲津이요 其在內之流而不行者가 爲液也라

6) 張: 胃者 五臟六腑之海는 水穀者皆入於胃하고 五臟六腑皆稟氣於胃일새라 五味는 各歸其所喜하고 其津液은 各走其道니 隨三焦出氣하야 以溫肌肉하고 充皮膚者爲津이요 其流而不行者 爲液이니 流者는 渾澤注於骨하야 補益腦髓하야 灌精而濡空竅者也라 ○汪: 三焦出氣는 宗氣出上焦와 營氣出中焦와 衛氣出下焦라 ●章: 水穀食物이 皆有五味不同하니 五味入口에 各走其海者는 如酸先入肝과 辛先入肺之類라 故로 其化生津液은 隨氣流行하야 各走其道也라 三焦爲相火所游行이니 陽氣는 由之而出하야 以溫肌肉하고 充皮膚之氣水를 名

景岳程은 “水穀을 먹으면 五液이 이로 말미암아 생성된다. 五味를 섭취하면 각각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 매운맛은 肺로, 쓴맛은 心으로, 단맛은 脾로, 신맛은 肝으로, 짠맛은 먼저 腎으로 들어간다. 五味가 각각 그 海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에게에는 四海가 있으니 腦는 髓海, 衝脈은 血海, 膻中은 氣海, 胃는 水穀之海가 되므로 이곳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이다. 五臟과 四海는 각각 經脈을 따라서 水穀의 氣味를 받아들여이므로 津液은 각각의 變化에 따라 통로로 흘러가니 이것이 津과 液이 구별되는 까닭이다. 宗氣는 上焦에 쌓이고 營氣는 中焦에서 나오고 衛氣는 下焦에서 나오니, 表部까지 도달하는 것은 陽氣이므로 三焦에서 氣가 나와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津이 되니 津은 陽에 속하고, 裏部를 營養하는 것은 陰氣이므로 血脈안을 흘러다니며 밖으로 흘러지지 않아 臟腑로 스며들어 精髓를 보충하는 것은 液이 되니 液은 陰에 속한다.”⁷⁾라고 하였다.

爲津이니 是由陽所化也요 其流而不隨陽氣蒸騰者를 名爲液이니 此津濃厚하며 是由陰所化也라 ○黃: 三焦出氣하야 以溫肌肉하고 充皮膚하니 隨氣化而流行者 則爲津이요 其留而不行者 則爲液이라 ○傑: 三焦出氣는 就是指營衛氣血液等은 都是飲食物的精氣所化니 這些精氣는 由三焦輸出하야 散布全身內外하니 如衛氣出上焦와 營氣出中焦等이라 津屬陽하야 隨衛氣運行於周身體表하며 液屬陰하야 隨營氣循經脈運行於體內하니 所以津液同類異名은 在性質上和分布範圍上에도 也是略有差別的이라 ○校釋: 飲食物都從口入이면 其中包括的酸苦甘辛鹹五味所化生的精微는 分別注入相應的臟器及人體四海하야 而營養全身하고 飲食物所化之津液은 分別沿一定的道路布散이니 經由三焦布散의精氣하야 可以溫潤肌肉하고 充養皮膚를 叫做津이요 那些流注于臟腑官竅하고 補益腦髓而不布散的을 叫做液이라

- 7) ●景岳: 水穀入口가 五液之所由生也라 五味之入에 各有所歸하니 辛先入肺하고 苦先入心하고 甘先入脾하고 酸先入肝하고 鹹先入腎也라 各注其海者는 人身有四海하니 腦爲髓海요 衝脈爲血海요 膻中爲氣海요 胃爲水穀之海也라 五藏四海는 各因經以受水穀之氣味 故로 津液隨化而各走其道라 此는 津液之有辨也라 宗氣는 積於上焦하고 營氣는 出於中焦하고 衛氣는 出於下焦하니 達於表者는 陽之氣也 故로 三焦出氣하야 以溫肌肉하고 充皮膚 而爲其津이니 津屬陽也요 營於裏者는 陰之氣也 故로 周流於血脈之間 而不散行於外하야 注於藏府하고 益於精髓 而爲之液이니 液屬陰也라 ○程: 海는 卽靈樞海論所說的 腦爲髓海와 胃爲水穀之海와 衝脈爲血海와 膻中爲氣海라 水穀五味는 化生以津液精微하야 分別注于五臟四海하야 以營養周身이라

郭은 “『荀子修身』의 楊注를 살펴보면 溫溫은 潤澤한 모양이다.”라고 하였으니 ‘以溫肌肉’은 肌肉을 윤택한다는 것이므로 여러 注에서 溫을 ‘따뜻하다’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⁸⁾”라고 하였다.

[3] 天暑衣厚 則腠理開 故汗出 寒留于分肉之間 聚沫則爲痛

楊馬張·景岳·章·黃·丹波·庸·『校釋』郭은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면 腠理가 열려 陽氣가 津液을 蒸騰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땀이라고 하니, 만약 寒氣가 分肉之間에 머물러서 津液을 엉기게 하여 留滯시키면 痛症이 발생한다.”⁹⁾라고 하였다.

[4] 天寒 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于膀胱 則爲溺與氣

楊黃은 “날씨가 차가워지면 表部가 폐색해서 氣와 濕이 밖으로 發泄되지 못하여 水氣가 膀胱으로 흘러내려가므로 오줌이 된다.”¹⁰⁾라고 하였다.

8) 郭: 按荀子修身楊注컨대 溫溫은 有潤澤之貌라하니 以溫肌肉은 猶云以潤肌肉이니 舊注에 以溫爲溫煖은 似不合이라

9) 楊: 因熱而腠理開而出者를 謂之爲汗이니 寒留分肉之間하야 津液聚沫하야 迫裂分肉이면 所以爲痛이라 ○馬: 人之所以有汗者는 正以天暑衣厚면 則人之腠理開故로 汗出이니 若有寒氣留於分肉之間이면 則沫聚而爲痛也라 ○張: 腠理者는 分肉之紋理니 津은 隨三焦出氣하야 滲注於皮膚肌肉之間 故로 腠理開 則汗大泄이라 如有寒而留聚於分肉之間이면 則非裂分肉而爲痛이니 沫者는 津聚而爲沫也라 此는 言津之爲汗也라 ○景岳: 此는 津液之爲汗也라 熱蒸於表 則津泄 故로 腠理開而汗出이로대 或爲寒邪所感 則液凝하야 留於肌肉之間 故로 汗沫聚而爲痛이라 ●章: 天暑衣厚 則腠理開하야 陽氣蒸津而外泄을 名爲汗이니 若寒氣外留分肉之間하야 津聚成沫하야 滯則爲痛이라 ○黃: 天暑衣厚 則腠理開 故로 液泄而爲汗이니 寒閉皮毛하야 液不得泄하야 留於分肉之間하야 聚而爲沫 則爲痛이라 ○丹波: 按컨대 聚沫爲痛은 與周痺同義라 ○庸: 寒은 寒邪요 留는 通溜니 寒留는 指腠理開汗出之時에 寒邪乘機侵入이라 沫은 水液이라 ○校釋: 熱天穿衣服較厚면 腠理就會開泄而汗出하니 如果寒邪留滯分肉之間하면 津液凝聚爲沫하야 阻碍陽氣流通하야 就會產生疼痛이라 ○郭: 暑天穿的衣服厚些면 則汗孔開하야 因此出汗하니 寒邪留止于分肉裏面하면 使津液凝聚爲沫하야 就會發生疼痛이라

10) 楊: 此는 解溺氣多之所由也라 ●黃: 天寒表閉하야 氣濕不得外行하야 水下流於膀胱 則爲溺라

張景岳은 “만약 날씨가 차가워지면 腠理가 閉塞하여 三焦의 氣運이 濕氣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하여 津液과 水氣가 膀胱으로 흘러들어가면 오줌과 氣가 된다. 무릇 膀胱은 州都之官으로 津液을 저장하고 있다가 氣化하여 내보내는 것은 오줌이요, 膀胱에 저장하고 있는 것은 太陽의 氣運을 化生하게 하니 이것이 津이 오줌이 되는 기전이다.¹¹⁾”라고 하였고,

馬汪·章『校釋』郭은 “날씨가 차가워지면 腠理가 닫히고 陽氣는 收斂하여 下降하므로 濕氣 또한 運行하지 못하고 下降하여 膀胱에 머물러 물이 된 즉 오줌과 氣가 되니 氣는 방귀가 된다.¹²⁾”라고 하였고,

程庸은 “溺은 오줌이요, 氣는 날씨가 추울 때 콧김, 입김 등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이다.¹³⁾”라고 하였다.

[5] 五藏六府 心爲之主 耳爲之聽 目爲之候 肺爲之相 肝爲之將 脾爲之衛 腎爲之主外

張傑은 “무릇 心은 君主之官이니 五臟六腑의 大主요, 耳目은 상부에 있는 空竅로 津液이 흘러가는 곳이다. 肝이 謀慮하고 決斷하는 것은 將軍과 같고, 肺가 모든 氣를 통솔하는 것은 나라의 宰相과 같고, 脾가 水穀을 소화하여 臟腑 肌肉 등을 영양하는 것은 衛士와 같으니 모두 君主의 신하이다. 腎이 外를 主宰한다는

것은 腎의 津液을 저장하였다가 精을 敷布시키고 空竅를 濡潤하는 기능이다.¹⁴⁾”라고 하였고,

景岳黃庸『校釋』은 “心은 五臟六腑를 總括하여 精神의 主宰者가 되는 까닭에 耳目 肺 肝 脾 腎이 모두 心에서 명령을 받으니 이러한 까닭에 청각 시각기능이 모두 心으로부터 나온다. 肺는 百脈을 朝會하고 治節을 主하므로 心의 宰相이 되고, 肝은 謀慮決斷을 主하므로 心의 將軍이 되고, 脾는 肌肉을 主하여 臟腑를 營養하고 保護하므로 心의 衛士가 되고, 腎은 骨을 主하여 形體를 세우므로 心의 主外(外部를 담당하는 기능)가 된다.¹⁵⁾”라고 하였고,

汪章은 “무릇 心은 五臟六腑의 主宰者이니 시각과 청각기능은 心의 作用이요 (候는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다.), 肺는 相傳之官이 되고, 肝은 將軍之官이 되고, 脾는 肌肉을 主하므로 心의 衛士가 된다. 「師傳」篇에 腎은 外部를 主하므로 먼 것도 들을 수 있으니, 청각기능의 좋고 나쁨을 살펴 腎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무릇 귀는 腎의 外竅이므로 外事를 듣는 것을 주관한다.¹⁶⁾”라고 하였다.

11) 張: 至若天寒 則腠理閉塞하여 三焦之氣가 因濕而不行하여 津水下流於膀胱 則爲溺與氣라 夫膀胱은 爲州都之官이니 津液藏焉할새 氣化而出者는 爲溺요 藏於膀胱者는 化生太陽之氣하니 此는 言津之爲溺也라 ● 景岳: 此는 津液之爲溺氣也라 腠理閉密 則氣不外泄故로 氣化爲水니 水必就下 故로 留於膀胱이나 然이나 水即氣也니 水聚則氣生하고 氣化則水注 故로 爲溺與氣라

12) 馬: 人之所以有溺與氣者는 正以天寒則腠理閉하여 內之氣與濕이 俱不行하고 其水下留於膀胱이던 則前爲溺而後爲氣耳라 ○汪: 氣濕不行于肌表 故로 下流爲溺라 溺與氣는 前溺後氣라 ● 章: 或天氣寒 則腠理閉하고 陽氣收降하여 濕氣不行 而亦下降하여 留于膀胱而成水則爲溺與氣니 氣者는 爲大便出穢氣也라 ○校釋: 天氣寒冷하던 腠理就閉塞而不能出汗하여 陽氣閉塞하여 水濕不得蒸化宣行하여 水液下注于膀胱하여 就化爲尿與氣라 ○郭: 在冷天엔 汗孔閉하여 氣溢而運行不暢하여 水液下流于膀胱하여 就成爲尿與氣라

13) 程: 溺는 尿同이요 氣는 指排出體外的水氣나 如從口鼻呼出的霧狀氣體等이라 ● 庸: 溺는 同尿이요 氣는 指天寒時從人體發出的肉眼可見的水蒸氣라

14) 張: 夫心은 爲君主之官이니 乃五臟六腑之主요 耳目者는 上之空竅니 津液之所注也요 將相衛者는 爲君主之臣使也라 腎主外者는 腎主藏津液하여 所以灌精濡空竅者也라 ○傑: 五臟六腑에 心是其中的主導라 在心主導下라야 一切臟腑組織機關이 才能發揮正常的功能이니 如耳司聽覺과 目司視覺等은 就五臟之間的關係來說이요 肺能調節一身氣分은 好像是總理國事的宰相이요 肝主謀慮決斷은 好像是智勇的將軍이라 脾主運化食物的精微하여 營養肌肉臟腑하여 衛護全身이요 腎主灌精하여 濡潤在外的空竅라

15) ● 景岳: 此二節은 言津液之爲涕泣也라 心總五臟六府하여 爲精神之主 故로 耳目肺肝脾腎이 皆聽命於心하니 是以로 耳之聽 目之視가 無不由乎心也라 肺朝百脈而主治節 故로 爲心之相이요 肝主謀慮決斷 故로 爲心之將이요 脾主肌肉 而護養藏府 故로 爲心之衛요 腎主骨 而成立其形體 故로 爲心之主外也라 ○黃: 脾爲之衛는 脾主肌肉하여 以爲護衛也요 腎爲之主外는 腎主骨骼하여 以爲外堅也라 ○庸: 主外는 主司外形하여 以成堅強的干架라 ○校釋: 五臟六腑之中에 心爲主宰요 其他臟器는 都在心的支配下活動이라 耳의聽覺과 目的看物은 都服務于心이요 肺朝百脈而主治節은 起宰相的作用이요 肝主謀慮決斷은 猶如將軍이요 脾主肌肉而保護整介機體는 就象衛士一樣이요 腎主骨而支撐全身的活動은 所以可以主外라

16) 汪: 腎爲作強之官이니 師傳篇에 腎者는 主爲外하여 使之遠聽하니 視耳好惡하여 以知其性이라하니라 ● 章: 夫心은 爲五臟六腑之主니 耳目觀聽은 爲心之用이

[6] 故五藏六府之津液 盡上滲于目 心悲氣并 則心系急 心系急則肺舉 肺舉則液上溢 夫心系與肺 不能常舉 乍上乍下 故欬而泣出矣

楊『校釋』郭은 “五臟六腑의 津液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니 슬프게 되면 氣가 心으로 부터 위로 올라가므로 心系가 緊張하고 肺葉이 위로 들리고 液道가 열려서 津液이 위로 올라가 넘친다. 다만 心系가 긴장하고 肺葉은 항상 들려 있지 않으나 슬프게 되어 때때로 氣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水液이 위로 넘칠때에 입을 벌리고 흐느끼게 된다.17)”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사람에게 눈물이 나는 까닭은 바로 五臟六腑가운데 心이 大主가 되고, 耳目肺肝脾腎이 모두 이 心을 輔相하는 것이므로 五臟六腑의 津液이 모두 눈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슬퍼서 氣가 아우르면 心系가 급해지고 肺葉이 들리니 津液이 이를 따라 위로 넘치게 되니 이것이 눈물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다. 心系와 肺는 항상 다 들리지 않고 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만 이제 心系가 급해지고 肺葉이 들리니 이것이 기침이 나고 눈물이 나는 이유이다.18)”라고 하였고,

니 候者는 審察之謂요 肺爲相傳之官이요 肝爲將軍之官이요 脾主肌肉하야 爲身之外衛라 師傳篇에 曰腎者 主爲外하야 使之遠聽하니 視耳好惡하야 以知其性이라하니 蓋耳爲腎之竅요 主聞外事也라

17) 楊: 身中五官所管津液并滲于目이 爲泣이라 泣者는 泣出之時에 引氣張口也라 ○校釋: 五臟六腑의 津液은 都滲于眼目하나니 人在悲哀時엔 氣向上并于心하야 心系因而拘緊하고 肺葉隨着上學하며 液道也開大하야 津液就向上流溢이라 而心系和肺葉은 不能經常拘緊和上學나 時上時下하면 所以發生抽咽而流淚라 ●郭: 那五臟六腑之津液은 都要向上滲注于眼睛하나니 心有悲哀則五臟六腑之氣가 都上并于心하야 就會使心臟的脈絡呈現緊張하고 心臟的脈絡出現緊張하면 則肺葉上學하고 上學則津液向上流溢이라 但心臟脈絡緊張라도 肺葉不能經常上學나 氣行忽上忽下하면 所以當水液隨氣上溢時에 就會出現引氣張口而哭的現象이라

18) ●馬: 人之所以有泣者는 正以五臟六腑에 心爲之大主요 而耳目肺肝脾腎이 皆所以輔相此心者也니 故로 五臟六腑之津液이 盡上滲于目세라 如心悲氣並 故로 心系急하고 肺葉舉하야 津液因隨之而上溢하니 此泣之所由出也라 蓋心系與肺는 不能盡舉하고 本乍上而乍下者로대 今心系急而肺葉舉하니 此其所以欬而泣乃出也라 ○景岳: 心爲藏府之主 故로 五藏之系 皆入於心이라 心之總系는 復上貫於肺하야 通於喉하야 而息由以

張章黃庸은 “臟腑의 精氣가 눈에 모이는 까닭에 津液이 모두 위로 올라가 눈으로 스며든다. 만약 마음이 슬퍼서 氣가 아우르게 되면 心系가 급해지고 肺가 위로 들리므로 津液이 氣를 따라 위로 넘치게 되니 心系와 肺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肺氣가 逆하는 까닭에 슬퍼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면서 기침을 하는 것이다.19)”라고 하였다.

[7] 中熱則胃中消穀 消穀則蟲上下作 腸胃充郭 故胃緩 胃緩則氣逆 故唾出

楊馬張景岳章黃程傑『校釋』郭은 “이는 津液이 唾液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蟲은 三蟲을 말하는 것으로 蛔蟲 赤蟲 蟻蟲이다. 寄生蟲은 濕熱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항상 腸가운데 있는데, 胃熱하게 되면 음식이 소화되어 속이 비게 되는 까닭에 寄生蟲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腸胃의 사이에서 上下로 움직이게 된다. 充郭이라는 뜻은 늘어져 가득채워진다는 뜻이니 腸이 늘어져 채워지면 胃가 弛緩하고 胃가 弛緩하면 氣가 逆上하여 涎이 이를 따라 넘치는 까닭에 唾液이 많아지게 된다. 살펴보면 「宣明五氣篇」에 腎의 液이 唾가 된다 하고 여기에서는 胃의 液이 唾가 된다 하니, 이는 胃가 腎과 더불어 모두 唾를 主하지만 대개 土氣가 鬱하여 발생하는 唾는 근본이 胃에 있고, 水氣가 넘

出 故로 心悲 則系急而肺葉舉하니 液即隨之而上溢이라 然이나 心系與肺는 本不常舉 故로 有乍上乍下하니 當其氣舉而上 則爲欬爲泣也라 凡人之泣甚而繼以嗽者는 正以氣并於上하야 而奔迫於肺耳라 按口問篇컨대 曰心者는 五藏六府之主也요 目者는 宗脈之所聚也며 上液之道也요 口鼻者는 氣之門戶也니 故로 悲哀愁憂 則心動하고 心動 則五藏六府皆搖하고 搖 則宗脈感하야 液道通 故로 涕泣出焉이라

19) 張: 心悲 則臟腑之氣 皆上竝於心하야 聽令於君主也라 氣竝於心 則心系急하고 心系急 則肺舉하니 肺乃心之蓋也라 肺舉 則液上溢하니 肺主氣而水隨氣行也라 心系與肺는 不能盡舉나 乍上乍下하니 下則爲欬하고 上則泣出矣라 此는 言五臟六腑之津液이 上滲于目하야 而爲泣은 由心悲肺舉而出也라 ●章: 臟腑精氣가 聚于目 故로 津液盡皆上滲于目也라 心悲氣并 則心系急하고 而肺上學 故로 液隨氣上溢이라 而心系與肺가 乍上乍下하면 肺氣逆 故로 悲者 泣出而咳也라 ○黃: 心悲氣并하야 系急肺舉하야 液上溢于目 則爲泣이라 ○庸: 心系는 指從心發出而與肺等周圍臟器相連通的脈絡組織이요 急은 拘急收引이라 乍는 忽然이니 乍上乍下는 指肺葉時舉時不舉라

쳐서 발생하는 唾는 근본이 腎에 있다.20)라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爲溺與氣’에 대하여 『傷寒』成注에는 ‘爲溺’로 되어 있는데, 『語譯』에서는 “‘與氣’ 두자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氣’의 의미는 추운날에 입과 코를 통해 나오는 氣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날씨가 차가 워지면 인체에서 나오는 氣는 비교적 습기가 많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汗 溺 泣 唾와 함께 칭하여 津液五別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볼 때, ‘爲溺與氣’로 하는 것이 옳다.

‘天熱衣厚’에 대하여 『甲乙』에는 ‘天暑衣厚’로 되어 있는데, 아랫 문장 ‘天暑衣厚 則膜理開’를 보더라도 ‘天

暑衣厚’라고 하는 것이 옳다.

‘三焦出氣’에 대하여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上焦出氣’로 되어 있는데, 三焦의 기능을 살펴보면 上焦에서는 宗氣가 中焦에서는 營氣가 下焦에서는 衛氣가 나오는 곳이므로 ‘三焦出氣’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其流而不行’에 대하여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其留而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留’와 ‘流’는 서로 통용되지만 ‘不行’의 句를 참조하여 볼 때 ‘其留而不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寒留于分肉’에 대하여 『張注本』에는 ‘寒溜于分肉’으로 되어 있는데, ‘寒留’는 寒氣가 응체하여 머문다는 뜻이고, ‘寒溜’는 寒氣가 흐른다는 뜻이므로 ‘寒溜于分肉’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氣濕不行’에 대하여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氣滯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氣가 滯하여 흐르지 않으면 水濕도 運行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氣와 濕이 運行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下句 ‘水下留于膀胱’를 참조하여 볼 때, ‘氣濕不行’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다.

‘水下留于膀胱’：『甲乙』과 『合本』에는 모두 ‘水下流于膀胱’으로 되어 있고, 『太素』와 『藏本』에는 모두 ‘水下溜于膀胱’으로 되어 있는데, ‘留’와 ‘流’는 서로 통용되고 또한 ‘流’와 ‘溜’는 의미가 비슷하므로 ‘留’ ‘流’ ‘溜’ 세 글자는 서로 통용함을 알 수 있으니 原文의 것을 중시하여 ‘水下留于膀胱’으로 하는 것이 좋다.

‘目爲之候’에 대하여 『藏本』에는 ‘目爲之候’로 되어 있고, 『綱目』에는 ‘目爲之視’로 되어 있는데, ‘候’는 ‘候’의 誤植이며, 『說文·人部』에 ‘候는 伺望也’라 하였고, 章注에 ‘候者는 審察之謂’라 하였으니 ‘目爲之候’가 옳다고 생각한다.

‘肝爲之將’에 대하여 『綱目』에는 ‘肝爲之榮’으로 되어 있는데, ‘榮’의 의미가 불확실하므로 ‘肝爲之將’이 옳다.

‘腎爲之主外’에 대하여 『太素』에는 ‘腎爲之主水’로 되어 있는데, 上句 ‘肺爲之相 肝爲之將 脾爲之衛’의 내용이 五臟六腑의 大主人 心을 보좌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 腎이 骨을 主管하여 形體를 세우거나 腎의 竅가 耳인 까닭에 外事를 듣는 기능으로 보아 ‘腎爲之主外’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 楊：蟲者는 三蟲也요 郭者는 胸臆也라 穀消之時엔 則蟲動上下하야 腸胃寬하야 充郭中 故로 腸胃緩而氣上하니 所以唾也라 ○馬：人之所以有唾者는 正以胃中熱 則易消穀之故耳라 其消穀之時엔 蟲必上下交作하니 穀既消盡 則腸胃도 亦已充郭 故로 胃亦寬緩이라 夫胃寬緩 則氣得上逆而升하니 唾는 斯隨氣而上出者也라 此는 論五液之爲病이니 而岐伯詳言之가 如此라 ○張：口問篇에 曰胃緩 則廉泉開 故로 涎下하니 補足少陰이라 蓋任脈은 起於足少陰之陰中하야 上出於廉泉하니 胃緩 則少陰之氣가 不與陽明相合하고 反上逆於廉泉 則水液隨之 故로 涎唾也라 此는 言液之爲唾也라 ●景岳：此는 津液之爲唾也라 蟲爲濕熱所化니 常居腸中이로대 胃熱 則消穀中空하야 蟲行求食 故로 或上或下하야 動作於腸胃之間이라 充郭者는 縱滿之謂니 腸郭 則胃緩하고 胃緩 則氣逆上行하야 涎隨而溢 故로 多唾也라 按컨대 宣明五氣篇에 曰腎爲唾라하고 而此에 曰胃爲唾라하니 是는 胃之與腎이 皆主爲唾나 蓋土鬱之唾는 在胃하고 水泛之唾는 在腎也라 ○章：中熱 則胃消穀하니 而蟲上下動作하야 充廓腸胃면 致胃緩氣逆하야 水液不行而唾出也라 ○黃：中熱消穀하야 胃緩氣逆 則爲唾라 ○程：蟲은 腸道寄生蟲이라 緩은 即鬆弛니 爲功能障礙之一이라 唾는 指唾液이니 脾胃有熱하야 功能障礙면 唾液分泌過多라 素問 宣明五氣篇에 謂脾爲涎이요 腎爲唾라하니 卽此處唾는 當包括涎在內라 ○傑：郭은 音廓이라 充郭은 是指在飲食後腸胃擴張而充滿의 意思라 ○校釋：中焦有熱하면 穀食易于消化하야 胃中容易空虛하니 寄生蟲追尋食物하야 就上下窺搖于胃腸하야 胃腸因而寬滿이라 胃發生弛緩하면 氣因之上逆하야 津液隨着上升하야 于是發生涎唾從口外流의 現象이라 ○郭：楊上善이 曰蟲者는 三蟲也라하니 按컨대 三蟲은 指蛔蟲赤蟲蟻蟲이라 上下作은 則上下活動이니 荀子 解蔽 楊注에 作은 動也라하니 腸胃充郭 故로 胃緩이라 孫鼎宜가 曰華嚴經音義 上引風俗通에 郭之爲言은 廓也이라하니 腸充廓 故로 胃緩이니 卽更虛更滿之義라 上胃字는 衍이라하니라

‘夫心系與肺 不能常舉’에 대하여 『太素』에는 ‘夫心系舉肺 不能常舉’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夫心系急 肺不能常舉’로 되어 있으며, 『張注本』에는 ‘夫心系與肺 不能盡舉’로 되어 있고, 『統本』 『金陵本』 『日抄本』에는 모두 ‘夫心系與肺 不能常與’로 되어 있는데, 문맥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甲乙』의 ‘夫心系急 肺不能常舉’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欬而泣出’에 대하여 『太素』에는 ‘喏而泣出’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喏而涎出’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슬퍼서 울 때 대부분 흐느끼고 기침하는 경우가 없으며 침을 흘리기는 하지만 눈물이 나는 것이 많으므로 ‘喏而泣出’로 하는 것이 옳다.

‘蟲上下作’에 대하여 『日抄本』에는 ‘蠱上下作’으로 되어 있는데, ‘蠱’가 ‘蟲’으로 인한 病證이긴 하지만 쉽게 上下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蠱上下作’으로 하는 것이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五味各走其海 津液各注其道’에 대하여 馬는 ‘五味가 모두 氣海로 들어가 宗氣가 되고 津液이 이를 따라 각각의 道로 들어간다.’라고 보아 五氣作用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었고, 韋은 ‘辛味는 肺로, 苦味는 心으로, 甘味는 脾로, 酸味는 肝으로, 鹹味는 腎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여 五味所入에 대해서만 論하고 四海에 대한 해설은 없으며, 楊은 ‘酸味 苦味는 血海로, 甘味는 水穀之海로, 辛味는 膻中 卽氣海로, 鹹味는 髓海로 들어가 가고, 目이 泣道, 腠理가 汗道, 廉泉이 涎道, 鼻가 涕道, 口가 唾道가 된다.’고 보아 四海와 五道를 자세히 논하였고, 景岳은 ‘辛味는 肺로, 苦味는 心으로, 甘味는 脾로, 酸味는 肝으로, 鹹味는 腎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 四海로 들어가는데, 四海는 腦가 髓海, 衝脈이 血海, 膻中이 氣海, 胃가 水穀之海이다.’라고 하여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三焦出氣’에 대하여 楊庸은 原文 자체를 ‘上焦出氣’로 보고 上焦之氣는 胃上口를 따라 나와 肺의 作用에 의해 전신으로 敷布된다는 의미로 보았고, 馬張·景岳·章 등은 上焦에서는 宗氣, 中焦에서는 營氣, 下焦에서는 衛氣가 나와 모두 전신에 敷布된다고 보았으니 後者의 의견이 옳다.

‘溫肌肉’에 대하여 여러 諸家들은 모두 ‘肌肉을 따뜻

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는데, 郭만이 ‘肌肉을 潤澤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溺與氣’중 ‘氣’에 대하여 張은 ‘膀胱의 太陽之氣가 氣化하는 것’으로 보았고, 馬·景岳·汪·章·『校釋』·郭은 ‘방귀’로 보았으며, 程庸은 ‘코, 입, 피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보았는데, 程 등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腎爲之主外’에 대하여 張傑은 ‘腎은 藏津液을 主管하므로 陰精을 부포시켜 밖의 空竅를 濡潤하는 것’으로 보았고, 景岳·黃庸·『校釋』은 ‘腎이 뼈를 主管하여 전신의 形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汪·章은 ‘腎竅가 耳이므로 耳의 外事를 듣는 작용’이라고 보았으니 3가지의 이론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乍上乍下’에 대하여 馬·景岳은 心系와 肺의 平常의인 운동으로 보았고, 張·章·黃庸은 사람이 슬퍼하였을 때 나타나는 變化의인 운동으로 보았는데, 心과 肺는 모두 上焦部位에 있는 것으로 生理的인 作用이 心은 火를 肺는 氣를 내리는 것이므로 후자의 의견이 옳다.

‘欬而泣出’에 대하여 楊·『校釋』·郭은 原文 자체를 ‘喏而泣出’로 보고 ‘喏’의 의미를 ‘흐느껴 우는 것’으로 보았으니 문맥상 옳다고 생각한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서 腸胃에 보내지면 그 津液이 다섯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면 오줌과 氣로 변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면 땀으로 변하고, 슬퍼하여 氣가 위로 아우르면 눈물로 변하고, 中焦가 熱하여 胃가 늘어진다면 唾液으로 변하고, 邪氣가 안에서 逆하면 氣가 閉塞하여 運行하지 못하고, 運行하지 못하면 水脹病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니 원하옵건데 그 이치를 듣고자 합니다.”

岐伯께서 말씀하셨다.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味에는 다섯가지가 있어서 각각 四海로 들어가고 그 津液도 각각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三焦에서 氣가 나와 肌肉을 溫煦하고 皮膚를 潤澤하게 하는 것을 津이라 하고, 머물러서 운행되지 않는 것을 液이라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면 腠理

가 열리므로 땀이 나는데, 만약 寒邪가 分肉 사이에 머물러서 津液이 모여 沫이 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腠理가 닫혀 氣와 濕이 운행하지 못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흘러 들어가 오줌과 氣로 변합니다.

五臟六腑 가운데 心이 主宰者가 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며, 肺는 宰相이 되고, 肝은 將軍이 되며, 脾는 護衛兵이 되고, 腎은 外부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五臟六腑의 津液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 스며드는데, 마음이 슬퍼 氣가 아우르면 心系가 급하고 心系가 급하면 肺가 들리고 肺가 들리면 津液이 위로 넘칩니다. 무릇 心系와 肺는 능히 항상 들러 있는 것은 아니나 (氣가 아우러져) 잠깐 들렀다가 내려갔다가 하므로 흐느끼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中焦가 따뜻하면 胃中の 水穀이 소화되어 없어지고, 水穀이 소화되어 없어지면 寄生蟲이 上下로 움직여서 腸胃가 腹腔에 가득차는 까닭에 胃가 늘어지고 胃가 늘어지면 氣가 逆上하는 까닭에 침이 나옵니다.”

第二章. 津液의 逆順과 病證

【原文】

五穀之津液¹⁾이 和合而爲膏²⁾者는 內滲入于骨空³⁾하여 補益腦髓하고 而下流于陰股⁴⁾라 陰陽不和하면 則使液溢而下流于陰⁵⁾하여 髓液皆減而下하고 下過度則虛⁶⁾하니 虛故로 腰背痛而脛痠⁷⁾이라 陰陽氣道不通하면 四海閉塞하고 三焦不寫⁸⁾하야 津液不化⁹⁾하니 水穀이 并行腸胃之中¹⁰⁾하야 別于廻腸¹¹⁾하고 留于下焦¹²⁾하야 不得滲膀胱 則下焦脹하고 水溢 則爲水脹이라 此는 津液五別之逆順也¹³⁾이다

【校勘】

- 1) 五穀之津液: 『周本』 『日刻本』 『張注本』에는 모두 '五穀之精液'으로 되어 있다.
- 2) 和合而爲膏: 『胡本』 『熊本』 『周本』 『明本』 『藏本』 『日抄本』 『張注本』에는 모두 '和合而爲高'로 되어 있다.
- 3) 而下流于陰股: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而下流于陰'으로 되어 있다.

- 4) 虛故腰背痛而脛痠: 『太素』卷二十九 津液에는 '虛故骨脊痛而脛痠'으로 되어 있고, 『甲乙』卷一第十三에는 '虛則腰脊痛而脛痠'으로 되어 있다.
- 5) 三焦不寫: 『周本』에는 '三焦下寫'로 되어 있다.
- 6) 水穀并行腸胃之中: 『周本』, 『太素』卷二十九 津液과 『甲乙』卷一第十三에는 모두 '水穀并于腸胃之中'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陰股: 음고, 넓적다리 안쪽 부위.
- (2) 痠: 痠疼痛也, 아픈 산.
- (3) 廻腸: 구불창자, 공장끝에서부터 회맹관까지를 말한다.

【較註】

【1】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者 內滲入于骨空 補益腦髓 而下流于陰股

楊은 “補益腦髓라는 것은 水穀의 津液이 和合하여 膏가 되어 頭蓋腔으로 스며들어가면 腦를 補益하게 되고, 여러 骨空으로 스며들어가면 髓를 補益하게 되고, 陰器로 흘러 내려가면 精을 補益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라고 하였고,

張은 “이는 精液이 髓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무릇 腎은 藏精과 骨을 主하는데, 和合而高라는 것은 五穀의 津液이 腎臟의 精과 더불어 서로 和合하여 骨空으로 스며들어가서 위로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骨空을 따라 腦髓를 補益하고 다시 髓空을 따라 내려와서 陰股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精液이 骨로 스며들어가 髓가 된 다음 먼저 위로 腦에 흘러들어가고 다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까닭에 五穀之精液 和合而爲高라고 말한 것이다.”²²⁾라고 하였고,

馬景岳章黃傑庸은 “이는 津液이 精髓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膏는 脂膏이니 精液이 和合하여 膏가 되

21) 楊: 補益腦髓者는 穀之津液이 和合爲膏하야 滲入頭骨空中이면 補益於腦요 滲入諸骨空中이면 補益於髓요 下流陰中이면 補益於精이라

22) 張: 此는 言精液之爲髓也라 夫腎主藏精而主骨하니 和合而高者는 五穀之液이 與腎臟之精으로 相和合而滲入於骨空하야 上行而高者가 從骨空而補益腦髓하고 復從髓空而下流於陰股라 此는 精液淪注於骨而爲髓하야 先上溢於腦而復下流 故로 曰五穀之精液 和合而爲高者라

어 骨空 가운데에 쌓이게 되면 腦, 骨髓, 精, 血이 되는 까닭에 위로는 巔頂에 이르러 充實해지고 아래로는 陰股로 흘러내려가 서로 통하게 된다.23)”라고 하였고,

『校釋』郭은 “五穀에서 化生된 津液은 和合하여 粘稠한 脂膏가 되어 안으로 骨空의 사이로 스며들어가 腦와 骨髓를 補益한다.24)”라고 하였다.

[2] 陰陽不和 則使液溢而下流于陰 髓液皆減而下 下過度則虛 虛故腰背痛而脛痠

楊郭庸은 “下過度는 樓英이 房勞過度라고 하였다. 만약 房事失調나 過度로 인하여 陰陽이 不和하면 津液이 흘러 나와 陰竅를 따라 流泄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髓液이 減少하게 되고 房事를 過度하게 하면 身體가 虛弱해져 腰背가 疼痛하고 足脛에 痠證이 발생하게 된다.25)”라고 하였고,

馬는 “만약 陰陽各經의 氣가 不和하게 되면 津液이 溢下하여 陰器로 흘러 내려가니 그 髓液이 모두 줄어들고 下行하게 된다. 下行이 過多하면 心이 虛해져 腰背痛과 脛痠이 나타난다.26)”라고 하였고,

23) 馬: 高는 當作膏라 五穀精液이 合而成爲膏者가 滲入於骨空之中하고 及補益腦髓하야 以下流於陰股라 ●景岳: 此는 津液之爲精髓也라 膏는 脂膏也라 精液和合爲膏하야 以填補於骨空之中 則爲腦爲髓 爲精爲血 故로 上至巔頂하야 得以充實하고 下流陰股하야 得以交通也라 ○章: 夫穀味入胃하면 由陰陽氣化하야 精液成膏하야 內滲骨空하야 補益腦髓하고 下流陰股하야 滋養筋脈이라 ○黃: 水之下行에 有精有粗하니 精者는 化而爲精液이요 粗者는 化而爲澀濁니 精液宜藏하고 而澀濁宜泄이라 精液者는 滲骨空而益腦髓하고 下流陰股하야 以注膝脛이라 ○傑: 由飲食精微所化生の津液도 亦可和合而成爲精髓脂膏하야 滲灌於內而填補在骨空之中하니 在上엔 可補益腦髓요 在下엔 則流通於大腿內廉의部分이라 ○庸: 津液은 此處當指津液中的厚濁部分이요 和合은 指津液與腎精相合이요 膏는 脂膏니 性粘稠라

24) 校釋: 五穀所化的津液도 也有和合成膏狀의이니 滲灌于體內的骨空하고 并可補充腦髓라 ●郭: 五穀所化的津液은 和合而成爲粘稠의脂膏니 內滲入于骨空之中하야 可以補益腦髓라

25) 楊: 若陰陽過度하야 不得以理和使 則精液溢下於陰하야 而其分減髓液過多 故로 虛而腰痛及脚脛痠也라 ●郭: 下過度는 樓英이 曰謂房勞過度也라하니라 如果陰陽不和면 就會使津液溢出 而從陰竅流泄하야 因此髓液減少하고 房事過度면 就會使身體虛弱하니 所以腰背疼痛足脛痠也라 ○庸: 陰陽不和는 此處指男女性交失調거나 或過度라

張은 “陰陽不和는 少陰과 陽明이 不和한 것을 말한다. 陰陽之氣가 不和하면 津液과 陰精이 和合하지 아니하여 津液이 骨 밖으로 흘러나가 陰部로 내려간다. 津液이 밖으로 흘러 나가면 髓液이 감소하여 아래로 내려가니 이것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過度하면 骨이 虛하여 腰痛 脛痠이 발생하니 이는 髓道의 閉塞이다.27)”라고 하였고,

景岳章黃傑『校釋』에서는 “陰陽이 不和하면 精氣가 모두 病드니, 氣가 病들면 不攝하게 되고 精이 病들면 不守하게 된다. 精氣가 서로 統攝하지 못하는 까닭에 津液이 아래로 흘러내려가 陰竅로 流泄하게 되니 陰精과 骨髓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流泄이 過度하면 眞陰이 날로 虛해지는 까닭에 腰痛 脛痠 等病이 발생하니, 이는 勞瘵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이다.28)”라고 하였다.

[3] 陰陽氣道不通 四海閉塞 三焦不寫 津液不化 水穀并行腸胃之中 別于迴腸 留于下焦 不得滲膀胱 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楊馬張景岳章黃程傑은 “陰陽의 氣道가 阻滯하여 통하지 않으면 氣海 血海 髓海 水穀之海도 또한 閉塞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三焦의 決瀆機能에 이상이 발생하여 輸瀉하지 못하면 津液이 全身에 敷布되지 못하여

26) 馬: 惟陰陽各經之氣不和 則液溢下하야 而下流於陰器矣니 其髓液皆減而下行이라 下行過多 則心虛하야 致腰背痛而脛痠이라

27) 張: 曰陰陽不和者는 少陰與陽明之不和也라 陰陽之氣不和 則液與精不合하야 使液溢於骨外而下流於陰矣라 液溢於外 則髓液皆減而下하니 是不能爲高矣요 下流過度 則骨虛而腰痛脛痠矣니 此는 髓道之閉塞也라

28) ●景岳: 陰陽不和 則精氣俱病하니 氣病則不攝하고 精病則不守라 精氣不相統攝 故로 液溢於下하야 而流泄於陰竅니 精髓皆減이라 輸泄過度 則眞陰日虛 故로 爲腰痛脛痠等病이니 此는 勞瘵之所由作也라 ○章: 若其陰陽不和 則氣化失度하야 使液溢下하야 流出于陰竅하야 而爲帶濁等病이라 因而髓減하면 消耗元氣而致虛故로 腰背痛而脛痠이라 ○黃: 陰陽不和면 精液溢泄하야 下流陰竅하야 髓液皆減하니 下甚則虛하고 虛故로 腰背痛而脛痠也라 此는 精液之不藏者也라 ○傑: 精屬陰이요 氣屬陽이니 如陰陽不和 則精氣不能守攝하야 就使精液溢出於下 而從陰竅流泄이라 因此種流泄하야 使髓液日益減少하고 流泄過度 則眞陰日益虛損하니 則會出現腰背作痛而足脛痠等症狀이라 ○校釋: 在陰陽不和하야 陽氣不能固攝的時候엔 精液即下流陰竅하야 而使髓液減少하고 精液流泄而髓液減少得過度면 就會造成陰虛하니 出現腰背脊骨疼痛和足脛痠楚라

飲食물이 運化되지 않아 清濁이 나누어지지 않은채 함께 腸胃之中으로 流行하니 그 糟粕은 回腸으로 들어가 지 못하고, 水液은 下焦에 머물러 膀胱으로 스며들지 못하니 이로 인해 下焦가 脹滿하고 水液이 四方으로 넘쳐 흘러 水脹病이 발생한다.²⁹⁾”라고 하였고,

『校釋』郭은 “陰陽의 氣道가 阻滯하여 통하지 않으면 四海가 閉塞하고 三焦가 輸泄할 수 없어서 津液이 布化되지 아니하여 水穀이 腸胃 가운데로만 오로지 行하여 回腸에 쌓이므로 下焦에 머무르게 되어 膀胱으로 滲泄하지 못하니 이로 인해 下焦가 脹滿해지고 水液이 넘쳐서 水脹이 발생한다.³⁰⁾”라고 하였다.

29) 楊: 臟腑陰陽不得和通하면 則四海閉而不流하고 三焦壅而不瀉하야 其氣不得化爲津液하니 水穀并於腸胃不消하야 別於回腸而留下焦하야 不得入於膀胱하야 脹於下焦하고 溢入於身 故로 爲水脹也이라 ○馬: 斯時也에 陰陽之氣道不通하면 四海(卽海論之四海)閉塞하고 三焦不能輸瀉하야 其精液이 無自而化하며 其水穀이 竝居於腸胃之中하야 別於迴腸而不入하고 留於下焦而不行하야 不得滲入膀胱 故로 下焦脹而水溢하야 遂使水脹(又見本經水脹論)之病所由成也라 ○張: 陰陽氣道不通하면 則津液不得注於海하야 而四海閉塞矣오 三焦之氣不通하면 瀉於肌腠하야 而津液不化矣라 濟泌之汁이 不得滲於膀胱이면 而下焦脹矣오 水溢於下 則上逆而爲水脹矣라 ○景岳: 此는 津液之爲水脹也라 三焦爲決瀆之官이요 膀胱爲津液之府니 氣不化 則水不行하야 所以三焦不能瀉하고 膀胱不能滲하야 而腫脹之病所由作이니 故로 治此者는 當以氣化爲主라 試觀水潦爲災 使非太陽照臨 則陰凝終不能散하고 泥濘終不能乾하니 能知此義면 則知陰陽氣化之道矣라 ○章: 其陰陽氣道不通하야 四海閉塞하면 則繼入之水穀不化하고 下焦不宜하면 則鬱而成水脹矣라 ○黃: 溲溺者는 滲膀胱하야 以成川瀆하고 下流溺孔하야 以泄水濕이니 陰陽不通하면 四海閉塞하고 三焦不泄하면 津液不化하야 水流下焦 而不滲膀胱 則爲鼓脹이요 水溢經絡 則爲水脹이니 此水瀉之不泄者也라 ○程: 此句는 謂三焦不瀉면 津液不能化生하야 而水邪泛溢爲病이라 ●傑: 陰陽의 氣道阻滯不通이면 氣海 血海 髓海 水穀之海도 也閉塞而不行하고 三焦의 決瀆失職하야 不能輸瀉하면 津液不得布化於全身하야 飲食物未經運化하고 合竝流行在腸胃之中하니 其糟粕은 不入回腸하고 水液은 停留在下焦하야 也不得滲灌於膀胱하니 這樣就會使下焦脹滿하고 水流四溢而成爲水脹이라

30) ●校釋: 陰陽의 氣道阻滯不通이면 四海發生閉塞하고 三焦不能輸泄하야 津液不得布化하야 水穀共同在腸胃中傳行하야 積在回腸하야 留于下焦하야 不能滲泄到膀胱하니 于是下焦脹滿하야 水溢而成爲水脹이라 ○郭: 臟腑陰陽氣道不通하면 氣海 血海 髓海 水穀之海閉塞하고 三焦不能輸瀉하야 津液不能運化하야 水穀聚集在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和合而爲膏’에 대하여 『胡本』 『熊本』 『周本』 『明本』 『藏本』 『日抄本』 『張注本』에는 모두 ‘和合而爲高’로 되어 있는데, 『素問·生氣通天論』王注에 ‘高는 膏也’라고 하여 ‘高’와 ‘膏’는 통용하고 있으나, 이 때 ‘高’의 의미를 ‘높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和合而爲膏’로 해야 한다.

‘而下流于陰股’에 대하여 『太素』에는 ‘而下流于陰’으로 되어 있는데, 『校釋』과 『語譯』에 “‘而下流于陰股’ 여섯자는 아마도 아래 ‘則使液溢而下流于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虛故腰痛而脛痠’에 대하여 『太素』에는 ‘虛故骨脊痛而脛痠’으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虛則腰痛而脛痠’으로 되어 있는데, 腰痛과 骨脊痛의 의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三焦不瀉’에 대하여 『周本』에는 ‘三焦下瀉’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三焦의 기능이상을 말하므로 ‘三焦不瀉’가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者’에 대하여 張은 原文을 ‘五穀之津液和合而爲高者’로 보고 여기에서 ‘高’의 의미를 ‘높다’라고 보았으니 잘못된 견해이다.

‘而下流于陰股’에 대하여 楊은 ‘股’字를 衍文으로 보고 ‘陰器에 藏精한다는 것’으로 보았고, 馬景岳·章黃傑·庸 등은 陰股를 大腿骨로 보고 ‘大腿骨의 骨髓를 補益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校釋』郭은 이 여섯 글자를 아래 ‘則使液溢而下流于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西洋醫學의 觀點에서 骨髓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血球를 생성하는 것이고, 血球의 생성이 大腿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馬景岳 등의 의견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고 본다.

‘陰陽不和’에 대하여 楊郭庸은 房事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馬는 陰陽 各經의 氣가 不和한 것으로 보았으며, 景岳·章黃傑·『校釋』에서는 전체적인 의미의 陰陽이

腸胃裏面하니 分入于回腸하야 停留在下焦하야 不能够滲入膀胱하니 這樣就會使下焦脹滿하야 水液充溢而成爲水脹이라

不和한 것으로 보았고, 張은 少陰과 陽明의 不和로 보았는데, 腰脊痛과 脛痠의 病證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陰精損傷인 것을 보면 楊 등의 의견이 제일 합당하다고 본다.

『別于廻腸』에 대하여 楊馬張景岳章黃程傑은 ‘飲食物이 運化가 되지 않아 廻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校釋』郭은 ‘飲食物이 運化가 되지 않아 廻腸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泌別清濁이 이루어지는 곳은 小腸이므로 水穀이 아직 運化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前者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直譯】

“五穀의 津液이 和合하여 생성된 脂膏는 骨空으로 스며들어가 腦髓를 補益하고 陰股로 흘러내려갑니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津液이 넘쳐 陰竅로 흘러 나가므로 髓液이 모두 감소하여 빠져나가고,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虛하게 되고 虛하게 되는 까닭에 腰脊이 아프고 足脛이 시큰거립니다. 陰陽氣道가 통하지 않으면 四海가 막히고 三焦가 輸瀉하지 못하여 津液이 化生되지 않습니다. 水穀이 腸胃속으로 몰려드므로 糟粕이 廻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津液이 下焦에 머물러 膀胱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니, 바로 下焦가 脹滿해지고 水液이 넘쳐 水脹證이 발생합니다. 이는 津液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그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정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IV. 意 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서 腸胃에 보내지면 음식물 중의 津液은 다섯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면 오줌과 입김 콧김 등의 수증기로 변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면 땀으로 변하고, 슬퍼하여 氣가 위로 아우르면 눈물로 변하고, 中焦에 熱이 있어 胃氣가 완만해지면 唾液으로 변하고, 邪氣가 안에서 上逆하면 氣機가 閉塞하여 運行하지 못하고, 氣機가 運行하지 못하면 水脹證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지 알지 못

하니 원하옵건데 그 이치를 듣고자 합니다.”

岐伯께서 말씀하셨다. “水穀은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데, 그 味에는 다섯가지가 있어서 먼저 신맛은 肝, 쓴맛은 心, 단맛은 脾, 매운맛은 肺, 짠맛은 腎으로 들어가고, 다시 腦(髓海), 衝脈(血海), 膻中(氣海), 胃(水穀之海)로 들어가고 음식물에서 化生한 津液도 각각 해당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三焦에서 나온 氣는 肌肉을 溫煦하고 皮膚를 潤澤하게 하는데 이를 津이라 하고, 津液가운데 머물러서 운행되지 않는 것을 液이라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면 腠理가 열리므로 땀이 나는데, 만약 寒邪가 分肉 사이에 머물러서 津液이 모여들어 沫이 형성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腠理가 닫혀 氣와 濕이 운행하지 못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흘러들어가 오줌과 입김 콧김 등의 수증기로 변합니다.

五臟六腑 가운데 心이 主宰者가 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며, 肺는 宰相이 되고, 肝은 將軍이 되며, 脾는 護衛兵이 되고, 腎은 外부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五臟六腑의 津液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 스며드는데, 마음이 슬퍼 氣가 아우르면 心系가 급하고 心系가 급하면 肺가 들리고 肺가 들리면 津液이 위로 넘칩니다. 무릇 心系가 급하고, 肺는 능히 항상 들려 있는 것은 아니나 (氣가 아우러져) 잠깐 들렀다가 내렸다가 하므로 흐느끼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中焦에 熱이 있으면 胃中の 水穀이 잘 소화되어 없어지고, 水穀이 잘 소화되어 없어진다면 寄生蟲이 먹이를 찾아 上下로 움직여서 腸胃가 부풀어 腹腔에 가득차게 되므로 胃가 늘어지니 胃가 늘어지면 氣가 逆上하는 까닭에 침이 나옵니다.

五穀의 津液이 和合하여 생성된 脂膏는 骨空으로 스며들어가 腦髓를 補益하고 그 다음 陰股로 흘러내려가 骨髓를 자양합니다. 房事過度등으로 인해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津液이 넘쳐 陰竅로 흘러 나가므로 髓液이 모두 감소하여 빠져나가고, 髓液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眞陰이 虛하게 되고 眞陰이 虛하게 되는 까닭에 腰脊이 아프고 足脛이 시큰거립니다. 陰陽氣道가 통하지 않으면 四海가 막히고 三焦가 輸瀉하지 못하여 津液이 化生되지 않습니다. 水穀이 運化되지 않고 腸胃속으로 몰려드므로 糟粕이 廻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津液이 下焦에 머물러 膀胱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면 下

焦가 脹滿해지고 水液이 넘쳐 水脹證이 발생합니다.

이는 津液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그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정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V. 結 論

이상과 같이 『靈樞五癢津液別』篇에 대한 관련 文獻을 校勘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章에서

‘爲溺與氣’가 『傷寒』成注에 ‘爲溺’로 되어 있지만, 汗 溺 泣 唾와 함께 칭하여 津液五別이라고 한 것을 볼 때 ‘爲溺與氣’로 하는 것이 옳다.

‘三焦出氣’이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上焦出氣’로 되어 있지만, 三焦의 기능을 살펴보면 上焦에서는 宗氣가 中焦에서는 營氣가 下焦에서는 衛氣가 나오는 곳이므로 ‘三焦出氣’로 하는 것이 옳다.

‘寒溜于分肉’이 『張注本』에는 ‘寒溜于分肉’으로 되어 있는데, ‘寒溜’는 寒氣가 흐른다는 뜻이므로 ‘寒溜于分肉’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氣濕不行’이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氣滯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下句 ‘水下留于膀胱’를 참조하여 볼 때 ‘氣濕不行’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다.

‘目爲之候’가 『藏本』에는 ‘目爲之候’로 되어 있고, 『綱目』에는 ‘目爲之視’로 되어 있으나, ‘目爲之候’가 옳다.

‘肝爲之將’이 『綱目』에는 ‘肝爲之榮’으로 되어 있으나, ‘肝爲之將’이 옳다.

‘腎爲之主外’가 『太素』에는 ‘腎爲之主水’로 되어 있는데, 上句 ‘肺爲之相 肝爲之將 脾爲之衛’의 내용이 五臟六腑의 大主人 心을 보좌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므로 ‘腎爲之主外’로 하는 것이 옳다.

‘夫心系與肺 不能常舉’는 『甲乙』의 ‘夫心系急 肺不能常舉’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欸而泣出’이 『太素』에는 ‘欸而泣出’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欸而涎出’로 되어 있는데, ‘欸而泣出’로 하는 것이 옳다.

‘其味有五各走其海 津液各注其道’에 대하여 楊의 ‘酸

味 苦味는 血海로, 甘味는 水穀之海로, 辛味는 膈中 卽 氣海로, 鹹味는 髓海로 들어가고, 目이 泣道, 腠理가 汗道, 廉泉이 涎道, 鼻가 涕道, 口가 唾道가 된다.’고 보아 四海와 五道를 자세히 논한 것과, 景岳의 ‘辛味는 肺로, 苦味는 心으로, 甘味는 脾로, 酸味는 肝으로, 鹹味는 腎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 四海로 들어가는데, 四海는 腦가 髓海, 衝脈이 血海, 膈中이 氣海, 胃가 水穀之海이다.’라고 한 것이 의미가 있다.

‘三焦出氣’에 대하여 馬張景岳章 등이 上焦에서는 宗氣, 中焦에서는 營氣, 下焦에서는 衛氣가 나와 모두 전신에 數布된다는 의견이 옳다.

‘溺與氣’중 ‘氣’에 대하여 馬景岳 등 ‘방귀’로 보았으며, 程庸은 ‘코, 입, 피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보았는데, 程 등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腎爲之主外’에 대하여 張의 ‘腎은 藏津液을 主管하므로 陰精을 부포시켜 밖의 空竅를 濡潤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景岳 등의 ‘腎이 骨을 主管하여 전신의 形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과, 章 등의 ‘腎竅가 耳이므로 耳의 外事를 듣는 작용’이라고 한 3가지의 이론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乍上乍下’에 대하여 章黃 등의 ‘사람이 슬퍼하였을 때 나타나는 變化的인 운동’으로 보는 것이 옳다.

‘欸而泣出’에 대하여 楊 등은 原文 자체를 ‘欸而泣出’로 보고 ‘欸’의 의미를 ‘흐느껴 우는 것’으로 보았으니 옳다.

3章에서

‘而下流于陰股’에 대하여 『校釋』과 『語譯』에서는 “ ‘而下流于陰股’ 여섯자는 아마도 아래 ‘則使液溢而下流于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三焦不寫’가 『周本』에는 ‘三焦下寫’로 되어 있으나, 이는 三焦의 기능이상을 말하므로 ‘三焦不寫’가 옳다.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者’에 대하여 張은 原文을 ‘五穀之津液和合而爲高者’로 보고 여기에서 ‘高’의 의미를 ‘높다’라고 보았으니 잘못된 견해이다.

‘而下流于陰股’에 대하여 『校釋』郭은 이 여섯 글자를 아래 ‘則使液溢而下流于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景岳 등은 ‘陰股’를 大腿骨로 보고 ‘大腿骨의 骨髓를 補益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의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陰陽不和'에 대하여 腰脊痛과 脛痠의 病證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陰精損傷인 것을 감안할 때 楊 등의 '房事失調나 過度' 보는 것이 옳다.

'別于迴腸'에 대하여 楊 등의 '飮食物이 運化가 되지 않아 迴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參考文獻

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2.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樓英 醫學綱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4.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5.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6.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8. 王永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0. 楊上善 著 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1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9
1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13.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1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5.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6.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中國 1986
17.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8. 程士德外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19. 陣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20. 陳璧琬·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

京 1963

2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22.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23.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參考辭典

1. 姜憲鎮 進明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3. 廓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1
4. 金壽山 漢醫籍字典 醫聖堂 서울 1991
5.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94
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7. 商務印書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港 1987
8.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9.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10. 張登本 武長春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1. 鄭鳳欽 漢英英漢中醫大辭典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1994
1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13. 車柱環 外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14.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 漢英醫藥大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15.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6. 洪元植 外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9

